

키이스 인트레이더 목사 집회 2 - 예수님이 왕 되신다

본문: 요한계시록 1:5~8, 잠언 14:28, 요한복음 19:19~22,
에베소서 1:9~10, 마태복음 21:6~10

/ 2004년 10월

오늘 저는 예수님께서 왕 되심을 말씀 드리려 합니다. 일반적으로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을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로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이해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유대인은 반대입니다. 유대인은 메시아를 '정복하는 왕'으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그가 십자가에서 구원자로 돌아가시는 것을 봤을 때 왕으로 인정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어느 한 쪽이 아닌, 왕이시며 구원자이신 분으로 봐야 합니다.

구원자이시며 정복하는 왕

요한계시록 1장 8절에서 예수님을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나눠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과거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구원자입니다. 현재는 하늘에서 우리 위에 성령을 부어주고 계시고 교회의 주인으로서 교회 활동을 지시하고 계십니다.

미래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는 정복하는 왕으로 오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을 보십시오.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여기서 '찌른 자'는 유대인이고 '모든 눈'은 모든 국가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전 세계 모든 기독교인뿐 아니라 유대인과 모든 족속들이 정복하는 왕으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맞아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지옥에 갈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어떤 영혼이라도 지옥불에 불타기를 주님이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왕 되신 주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을 모실 백성들로 이끌기 위해서입니다.

잠언 14장 28절에서 "백성이 많은 것은 왕의 영광이요 백성이 적은 것은 주권자의 패망이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해 사단의 족음에서 사람들을 구출해 예수님의 왕국에 데려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왕이신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8장 37절을 보십시오.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낫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하신대"

예수님께서서는 “나는 왕이 되기 위해 태어났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창세 전 그 아들을 향해 가진 목적입니다. 예수님이 아이로 태어났을 때 동방 박사들이 방문해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분, 인류를 다스리도록 예정된 왕”이라며 절을 했습니다.

왕이 되기 위한 탄생과 십자가의 죽음

예수님은 왕 되기 위해 태어난 것뿐 아니라 왕 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9절에서 22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달리신 십자가 위에 빌라도가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히브리와 로마, 헬라어로 쓴 패를 붙입니다. 제사장은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쓸 것을 바랐으나 빌라도는 ‘나의 쓸 것을 썼다’고 대답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린 순간 하나님께서 전 세계에 ‘이 사람이 세상의 왕 되는 이’라고 알리십니다. 그 당시 세계 문화에 으뜸 되는 언어인 로마와 헬라어로 분명히 표시하십니다. 히브리어로 십자가와 선악과는 같은 어원을 가진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을 다스리는 권위를 부여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이 땅을 다스릴 왕의 권위를 잃었습니다. 선악과는 시험입니다. 아담은 시험에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단 한분이 그 시험에 이겼습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을 위한 시험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죽기까지 하나님께 온전히 복종했기에 그 시험에서 이기시고 어린 양이 왕 될 가치가 있음을 보이셨습니다. 십자가가 그 분이 왕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합니다.

십자가 팻말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 있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서 왕이신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다윗의 후손으로 유대인에게 오셨고 유대 후손과 새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또한 모든 제자들은 유대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서 돌아가신 후 제자들은 열방에 나가 복음을 전하며 전 세계 사람들을 자신들이 예수님과 맺은 언약에 초대하는 것입니다.

한국인들은 처음 복음을 전해주고 순교한 외국인에게 복음의 빛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전 세계 사람들의 복음의 빛을 추정해 거슬러 올라가면 이방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순교 당한 사도들에 이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지만 다시 오실 때는 전 세계 사람들의 찬양을 받는 왕으로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 다시 오실 때 하늘과 땅에 있는 것을 다 가져와 통일되게 하십니다. 에베소서 1장 9절과 10절을 보십시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계시록에 3번이나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온다’고 나옵니다. 예수님께서서 오실 때 하늘의 예루살렘을 땅으로 가져와 합쳐지게 하실 것입니다.

호산나, 왕 되어 오실 주를 찬양하라

4복음서에 예수님께서 개선 장군처럼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하고 외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1장 6절~10절, 마가복음 11장 7~10절, 누가복음 19장 37절~38절, 요한복음 12장 12~13절입니다. 이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성경 절기를 알면 여기에 뭔가 이상한 점이 보입니다. 이 사건이 유월절 바로 직후에 일어났는데 유대인들은 유월절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지 않습니다. 장막절에 흔들니다. 이것은 상징적으로 예수님께서 잘못 된 때 오신 것임을 보여줍니다.

유월절은 봄의 절기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처음 입성한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장막절은 가을의 절기로 예수님 재림과 관련되어있습니다. 예수님의 승리의 입성이 가을, 즉 재림 시 일어남을 보여줍니다. 그때는 유대 제자만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사람의 환영을 받으며 오십니다. 나귀가 아닌 백마를 타고 전 세계 종들의 환영을 받으며 오실 것입니다.

아직 이 일이 일어나지 않은 이유는 바로 이 장면에 여러분이 초청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초청장을 보내는 것입니다. 이 티켓은 지옥에서 나와 왕이 잔치하는 그 날 들어가는 티켓입니다. 당신은 바로 그 날 초청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께서 왕관을 쓰고 오는 날을 간절히 바라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완전히 이루어 지는 것을 바라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을 구원해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경배하게 해야 합니다. 주 예수님 속히 오소서. 마라나타, 호산나 찬양하며 간절함으로 바라야 합니다.

여러분 그 날에 여러분이 있길 소망하십시오. 여러분 이름이 적힌 종려나무를 들고 예루살렘에서 찬송하며 예수님 오셔서 그가 왕위 받는 것을 보길, 하늘과 땅 모든 것이 합하는 것을 보길 소망하십시오. 그날에 내가 있길, 그 날에 많은 사람을 데려 와 '주님께 드리는 선물입니다'하고 말할 수 있기를, 그 안에서 모두 하나되는 놀라운 시간 되길 소망하십시오.

/ 정리=전성희shee@onnuri.or.kr

* 출처 : 은누리신문